

2017년 4월 27일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전략

4차 산업혁명: 선두기업 투자가 가장 강력한 전략

• 중화권 증시 동향

실적 호조에 중화권 증시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코웰패션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타이어, 고려아연, 롯데칠성, 현대산업, GS홈쇼핑, KTH,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20(목)	4/21(금)	4/24(월)	4/25(화)	4/26(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49.15	2,165.04	2,173.74	2,196.85	2,207.84	
	등락폭	10.75	15.89	8.7	23.11	10.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5(1)	424(3)	287(0)	534(0)	531(1)
		하락(하한)	329(0)	356(0)	509(0)	255(0)	257(0)
	ADR	104.53	103.04	102.80	103.00	106.56	
	이격도	10 일	100.41	101.09	101.31	102.04	102.17
		20 일	99.90	100.65	101.01	102.01	102.42
	투자심리	50	6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268	282	375	276	394
	거래대금	(십억 원)	5,133	4,838	4,403	5,107	5,246
코스닥	코스닥지수	635.8	634.96	626.62	632.57	635.11	
	등락폭	-0.19	-0.84	-8.34	5.95	2.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2)	490(0)	227(1)	785(2)	647(1)
		하락(하한)	636(0)	606(0)	902(0)	304(0)	450(0)
	ADR	103.24	103.08	101.73	102.66	103.04	
	이격도	10 일	101.34	101.18	99.74	100.51	100.69
		20 일	102.02	101.67	100.18	100.97	101.20
	투자심리	6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875	701	709	821	735
	거래대금	(십억 원)	3,696	3,201	3,080	2,974	2,82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82.9	1,840.5	1,092.4	399.9	69.6	200.5	141.3	13.0	268.1	47.8
	매도	2,651.0	1,552.0	1,010.6	302.8	127.7	283.9	84.3	12.8	199.0	50.1
	순매수	-368.1	288.5	81.8	97.2	-58.2	-83.4	57.0	0.2	69.1	-2.3
	4월 누계	-883.1	470.2	216.9	173.6	-52.9	-233.7	109.9	-22.1	242.0	196.0
	17년 누계	-3,569.4	5,950.6	-4,731.0	-2,373.9	-488.0	-2,741.7	177.3	-376.3	1,071.4	2,349.8
코스닥	매수	2,468.0	238.3	115.6	26.6	6.7	28.9	16.1	1.1	36.2	20.4
	매도	2,460.1	204.0	148.5	53.2	10.8	34.7	22.9	1.5	25.5	29.6
	순매수	7.8	34.3	-32.9	-26.7	-4.1	-5.8	-6.8	-0.3	10.8	-9.2
	4월 누계	-232.9	289.6	355.4	37.2	43.5	41.7	66.5	9.8	156.9	-412.2
	17년 누계	1,433.1	341.3	-1,207.2	-298.4	-274.7	-412.7	-57.4	-25.7	-138.3	-567.2

4차 산업혁명: 선두기업 투자가 가장 강력한 전략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51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8%p

- ▶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에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했던 상황
- ▶ 투자시점과 수혜기업 제시: 시점은 지금, 선두 인터넷, 반도체 기업 투자 추천
- ▶ 추천기업: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그룹, 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 투자에서
기업 선정 및 시점 선택에
어려움 존재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투자 아이디어: 구체적 투자시점과 수혜기업 찾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거론되고 있다. 또한, IT, 인터넷 기업들 대부분이 4차 산업 관련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위해 어느 업종의 어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4차 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모호한 측면이 많다. 관련된 산업과 기술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아직 성장 초기 국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 전반에 대한 모호성은 투자기업 선정 및 시점 선택에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하이 컨빅션 기업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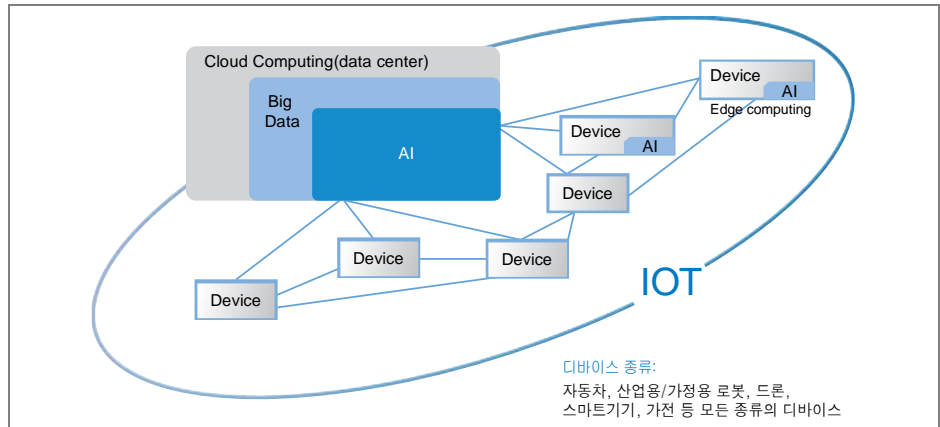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효한 투자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적정 투자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한다. 2) 또한, 산업성장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기업을 제시한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영향력 강화와 실적의 고성장이 지속될 기업들이다. 산업형성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강한 확신(컨빅션)을 가진다. 추천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그룹, 삼성전자 등이다.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시기술 안성되어 가고 있어

■ 지금이 4차 산업혁명 투자를 시작할 적기

우리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확대할 적기로 판단한다. 산업 개화를 촉진시킬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완성단계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기술적으로 완성되면서 이를 활용한 IoT(Internet of Things)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IoT 생태계가 생산현장에 적용되면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가정에 활용되면 스마트홈(smart home), 자동차산업에 적용되면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최근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AI의 효용성 향상과 AI를 활용한 IoT 사업 확대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 기술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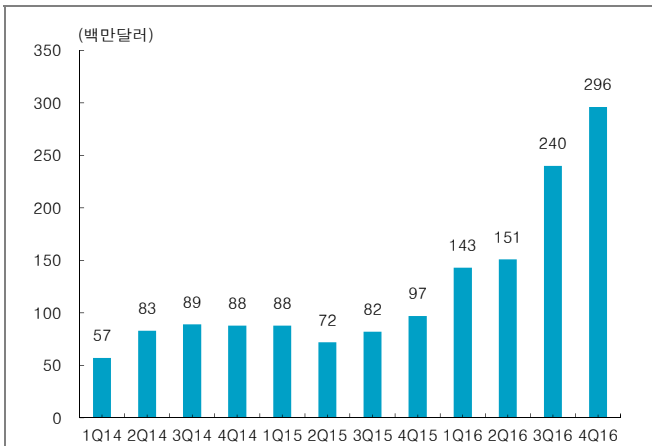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데이터센터 내 GPU 반도체
수요증가는 컴퓨팅 고도화
(완성형 AI)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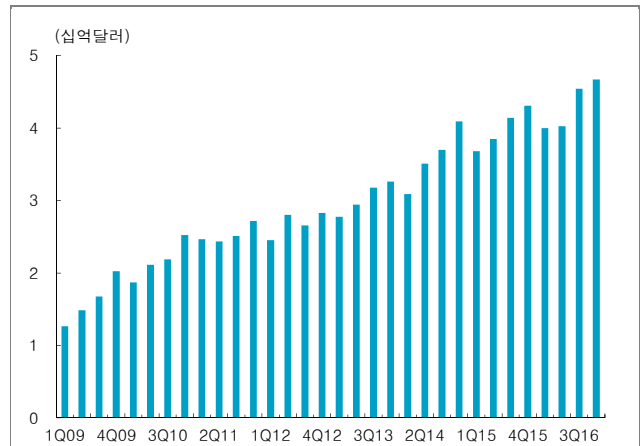
AI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GPU(Graphic Processing Unit) 반도체 제조기업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향 제품 공급증가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향 반도체 매출은 2016년에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데이터센터향 GPU 수요 증가는 AI 구현이 가능한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다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정밀 계산 영역은 일부 희생하더라도)함에 있어 GPU는 현실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센터 내 GPU 채택 확대는 AI의 기술 수준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엔비디아 데이터센터향 제품 매출 추이



자료: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인텔 데이터센터 사업부문 매출 추이



자료: 인텔, 한국투자증권

미국 선두 인터넷 기업들
자사 AI 솔루션
외부 사업화 확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전개 상황에서도 AI가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근접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구글, 아마존은 자사의 AI 솔루션에 대한 외부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의 라인업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머신러닝 엔진(Machine Learning Engine), 기훈련된 머신러닝 모델 등의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도 최근 AI비서 알렉사(Alexa)와 대화형 음성인식기기 아마존 에코(Echo)의 기반 AI 솔루션인 아마존 렉스(Lex)를 자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자에게 공개했다. 외부 사업자들은 아마존의 렉스 솔루션(대화형 인터페이스)을 활용해 자체 AI기기 혹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표 1> 구글의 대표 AI/머신러닝 서비스 개요

서비스	개요
머신러닝 컴퓨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게 클라우드 머신러닝(AI) 엔진을 제공 - 독자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가 부족한 고객 대상 - 구글 데이터센터 내 ASIC, TPU, GPU 반도체 디바이스가 서비스 기반
머신러닝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알고리즘으로 기훈련된 머신러닝(AI) 모델을 제공 - 인프라 및 머신러닝 모델 구축,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한 고객 대상 - 인프라와 플랫폼 수준의 서비스 제공
캐글(Kag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의 자회사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세트와 예측모델을 제공 - 전 세계 80만명 이상의 데이터 과학자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모델을 만들어 공개 - 예시: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 및 예측 모델, 전세계 행복지수 데이터 및 예측 모델 등을 캐글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
어드밴스드 솔루션스 랩 (Advanced Solutions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신러닝 엔진 활용 및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 서비스 - 고객들은 구글의 엔지니어로부터 AI 기술 및 사업과 관련된 스킬과 및 노하우를 전수

자료: 구글, CIO Korea, 한국투자증권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수혜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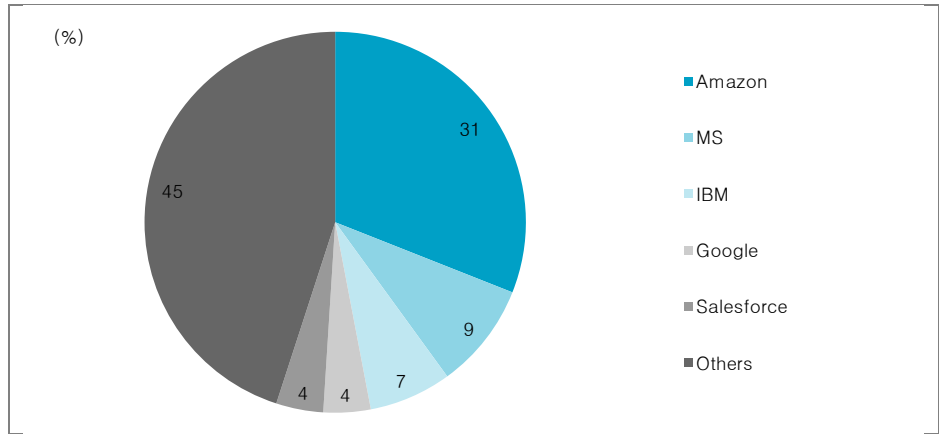
인터넷과 반도체 산업 내
선두기업에 주목

4차 산업의 개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인터넷과 반도체 산업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AI 솔루션을 확보한 선두 인터넷 기업과 AI 컴퓨팅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을 추천한다.

AI 산업의 헤게모니는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이미 넘어가 있어

AI 솔루션 보유 인터넷 기업: 4차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의 선두 인터넷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AI 솔루션 확보 여부가 산업 내 헤게모니 장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완성형 AI 솔루션을 보유한 사업자는 10년 이상 지속적인 데이터센터 투자를 수행해 온 미국의 선두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미국인터넷 기업의 AI 솔루션은 전 산업 영역에서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 사업의 운영체계 혹은 컴퓨팅 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AI의기술 특성 상 4차 산업에서는 과거 IT (PC, 인터넷,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에 더욱 종속적인 형태로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쉽게도 한국, 일본, 중국의 주요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두기업들이 구축한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내 핵심적인 부품공급자(vendor)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리는 완성형 AI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아마존(Amazon), 알파벳(Alphabet, 구글의 지주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을 주목한다.

[그림 4]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점유율 추이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2>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AI/클라우드 사업 현황

기업	주력영역	경쟁력포인트	글로벌 IDC 보유	AI 보유
아마존	B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점유율 1 위 사업자 -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 자사 클라우드/AI 브랜드 AWS(Amazon Web Services) 	○	○
구글	B2C, B2B (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최대 검색포털 및 인터넷 광고사업자 - 글로벌 최대 모바일 플랫폼(안드로이드) 제공 - 가장 진화된 AI 기술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자사 클라우드/AI 브랜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	○
마이크로소프트	B2C, B2B (사무용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점유율 1 위 - 글로벌 최대 PC 운영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자 - 자사 클라우드/AI 브랜드 애저(Azure) 	○	○
IBM	B2B (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최대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사업자 - 글로벌 최대 IT 인프라/네트워크 장비 사업자 - 자사 클라우드/AI 브랜드 왓슨(Watson) 	○	○

주: IDC → Internet Data Center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반도체 기술:
GPU, 저전력, 메모리

AI 및 IoT 생태계 구현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제조기업: 4차 산업(AI 및 IoT)의 확장은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모든 반도체 영역에서 중장기 시장 성장(금액 기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AI 및 IoT 생태계 구축에 핵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경쟁강도가 약해 가격 하락 위험이 제한적인 선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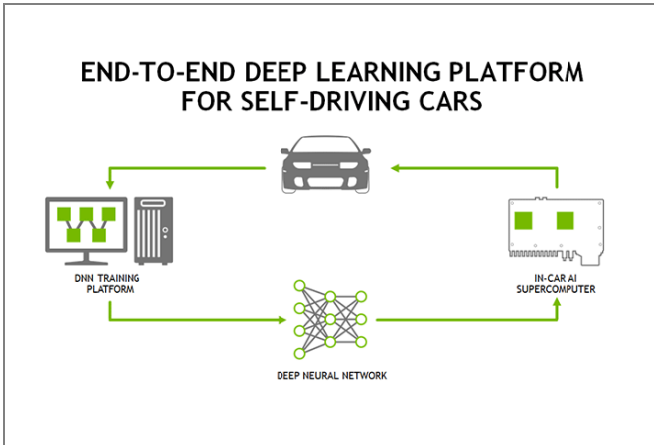
엔비디아:
인터넷 기업의 AI 사업을 위한
대체불가 기업으로 성장

1) GPU 반도체 제조기업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GPU는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기능을 AI 구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반도체이다. GPU는 개별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계산보다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강점을 지닌 병렬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은 AI 솔루션이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글로벌 GPU 시장은 미국의 엔비디아(NVIDIA)와 AMD로 양분되어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전체 GPU 시장 내 점유율이 70~80% 수준의 1위 사업자이며, 데이터센터용 GPU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인터넷 기업의 AI 기술 구축 및 글로벌 사업을 수행에 있어 엔비디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기업가치는
엣지컴퓨팅 사업을 통해
지속 상승 가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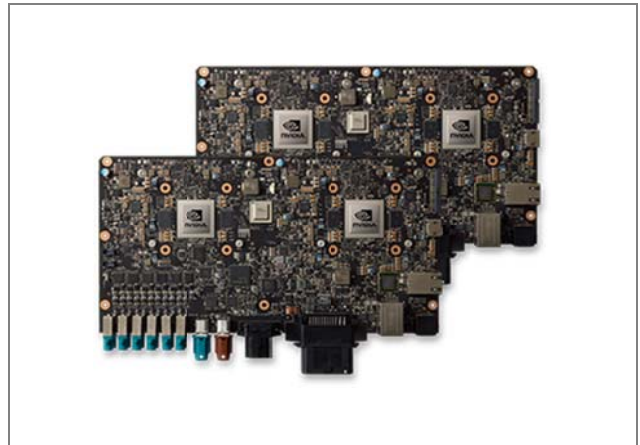
우리는 엔비디아의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 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엣지컴퓨팅은 디바이스 자체에 AI 구현이 가능한 반도체 모듈을 탑재하는 기술방식으로 중앙 데이터센터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방식과는 정반대 개념이다. 제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AI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차 등 IoT 생태계 구축에 강점을 보이는 기술이다. 엔비디아는 NVIDIA DRIVE PX2, Jetson TX2 등 엣지컴퓨팅 기반의 GPU 반도체 제품의 출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기업이 구축한 4차 산업의 서플라이체인 내 핵심 부품 공급기업으로서 역할을 뛰어 넘어 엔비디아 스스로가 구글, 아마존 등과 직접 경쟁하는 AI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엔비디아는 그 동안 소수의 인터넷 기업들만이 헤게모니를 가졌던 4차 산업에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그림 5]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구현 개념도: DNN을 마친 AI반도체를 활용



자료: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NVIDIA DRIVE P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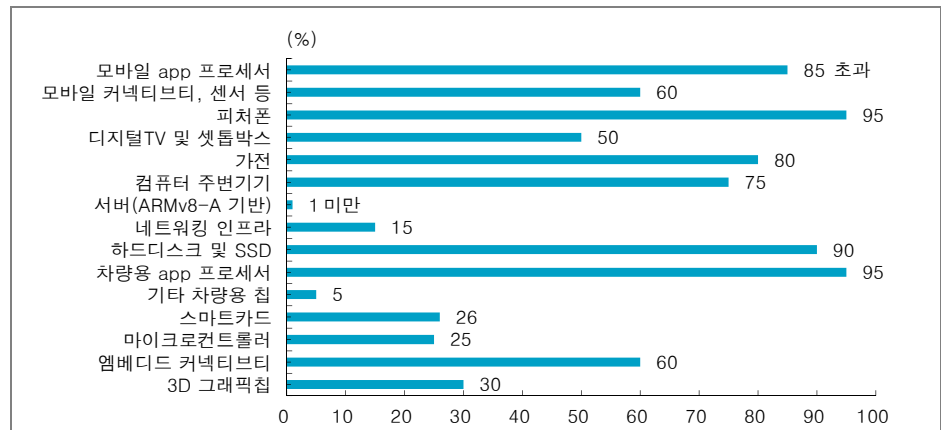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 한국투자증권

ARM홀딩스:

저전력 반도체 기술 보유
IoT 산업 핵심기업으로 부상
모회사 소프트뱅크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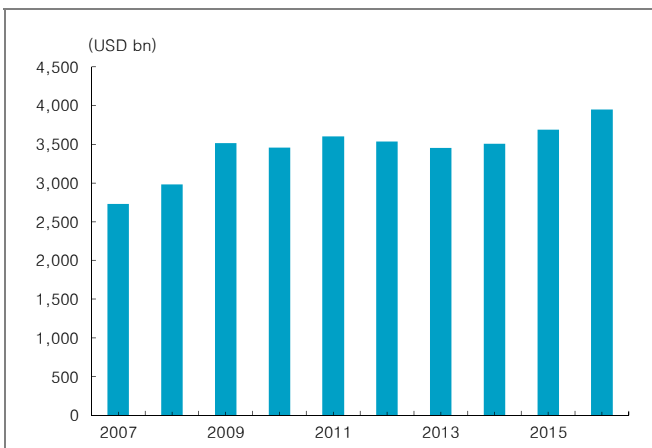
2) 반도체의 저전력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IoT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개별 디바이스와 전체 시스템의 전력 소모 최소화가 핵심 기술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우리가 ARM홀딩스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ARM홀딩스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IP) 분야 글로벌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에 반도체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향 반도체 시장 내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파악된다. 향후 IoT 기반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대부분도 ARM의 반도체 설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ARM홀딩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 3년간 연평균 각각 35%, 41% 증가했고, 이와 같은 고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6년 ARM홀딩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7] ARM홀딩스 적용 어플리케이션(반도체) 별 글로벌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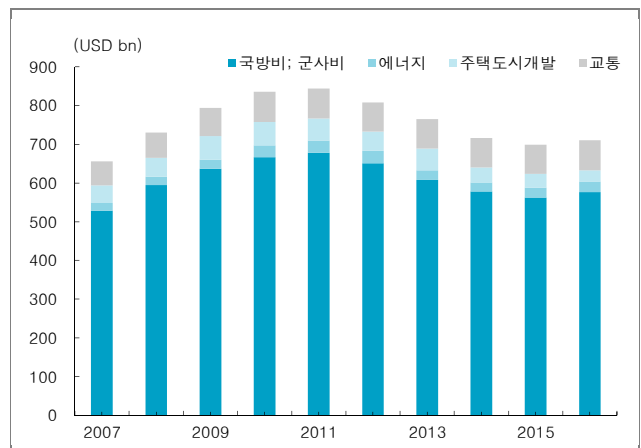
자료: ARM홀딩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8] ARM홀딩스 실적추이



주: 1) FY2015 → 2015.1~2015.12 2) **ARM홀딩스 최근 분기(2016.10~12)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45억엔, 288억엔 기록**
자료: 소프트뱅크, ARM홀딩스,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소프트뱅크 연결 실적 내 ARM홀딩스 실적 비중



주: 소프트뱅크 FY2015 → 2015.3~2016.3, ARM홀딩스 FY2015 → 2015.1~12
자료: 소프트뱅크, ARM홀딩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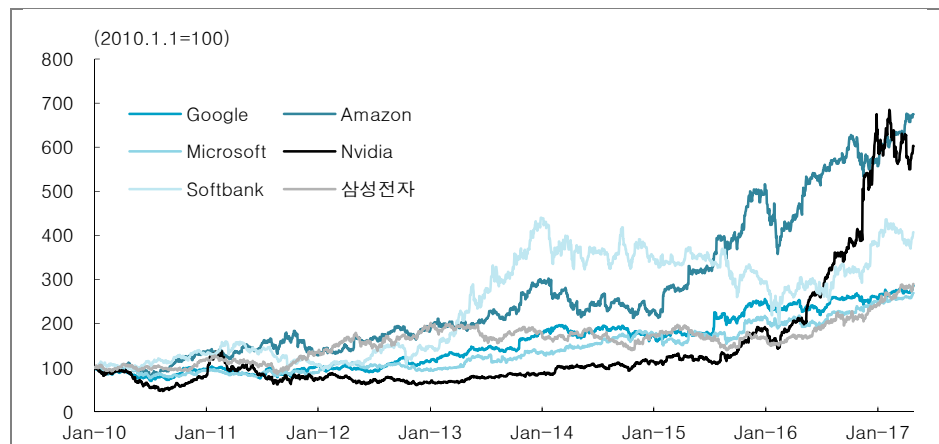
삼성전자:
AI 컴퓨팅 성능 향상에
핵심적인 메모리(NAND)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장악

3) 4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NAND 메모리의 중요성이 상승할 전망이다. CPU, GPU 등 로직반도체 이외 메모리반도체의 기술발전 역시 컴퓨팅 속도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SSD(Solid State Drive) 적용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3D NAND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함을 의미한다.

■ 많이 오른 주가를 걱정할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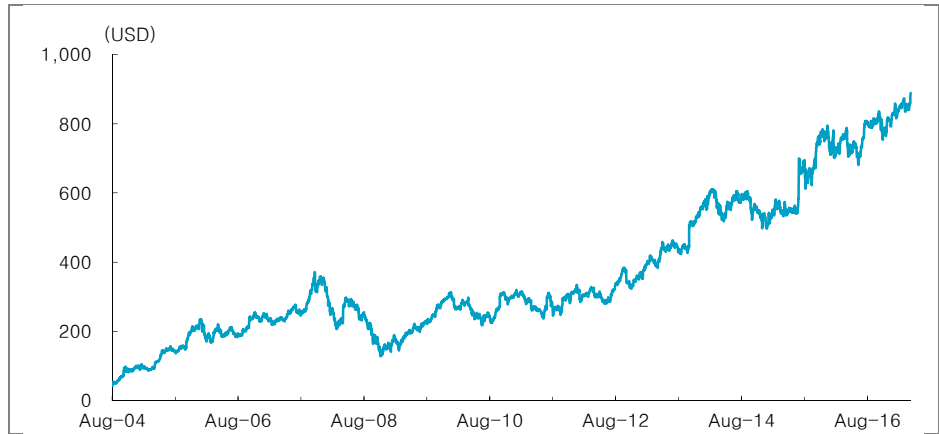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가 제시한 6개의 기업(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그룹,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오른 주가와 일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의 주가 랠리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단기적인 산업사이클을 뛰어넘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업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I, IoT 시장의 수요를 스스로 창출함과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도 핵심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반도체 기술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성장의 가시성이 높다. 과거 2000년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의 구글(당시는 구글로 상장)의 주가 추이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투자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림 10] 추천 종목 상대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과거 구글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4차 산업혁명 Top picks 밸류에이션 table

(단위: USD bn, USD, KRW bn, KRW, JPY bn, JPY, % x)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증감률	EBITDA	PER	EV/EBITDA	PBR	ROE	DY
ALPHABET-A	2014.12	66.0	16.5	14.1	20.9	7.7	21.5	26.8	25.4	3.5	14.8	0.0
GOOGL US Equity	2015.12	75.0	19.4	16.3	23.1	10.5	24.4	33.6	21.9	4.4	14.6	0.0
현재가(USD): 888.8	2016.12	90.3	23.7	19.5	28.3	22.5	29.9	28.2	17.4	3.9	15.0	0.0
시가총액: 608.4	2017.12F	88.2	35.1	28.7	40.9	44.4	42.7	21.7	11.9	3.8	15.7	0.0
	2018.12F	101.5	41.4	33.9	48.2	17.8	49.5	18.5	9.7	3.1	15.7	0.0
AMAZON	2014.12	89.0	0.2	(0.2)	(0.5)	NA	4.9	NA	87.8	13.4	(2.4)	0.0
AMZN US Equity	2015.12	107.0	2.2	0.6	1.3	NA	8.5	537.8	50.7	23.8	4.9	0.0
현재가(USD): 907.6	2016.12	136.0	4.2	2.4	5.0	291.4	12.3	152.7	34.8	18.5	14.5	0.0
시가총액: 433.8	2017.12F	165.4	6.1	6.7	13.1	161.1	19.2	69.4	21.1	16.8	20.2	0.0
	2018.12F	199.7	9.9	9.6	18.9	44.5	25.3	48.0	15.5	11.8	23.7	0.0
Microsoft	2014.6	86.8	27.8	22.1	2.7	1.9	33.0	15.8	14.0	3.8	26.2	2.7
MSFT US Equity	2015.6	93.6	18.2	12.2	1.5	(44.0)	24.1	18.2	19.2	4.4	14.4	2.8
현재가(USD): 67.9	2016.6	85.3	20.2	16.8	2.1	42.3	26.8	24.0	17.4	5.5	22.1	2.8
시가총액: 524.9	2017.6F	96.7	28.3	23.3	3.0	40.1	36.1	22.9	13.3	7.3	35.5	2.3
	2018.6F	104.1	31.1	25.2	3.3	10.3	39.8	20.7	11.5	6.1	34.3	2.5
NVIDIA	2015.1	4.7	0.8	0.6	1.1	52.0	1.0	14.1	60.3	2.6	14.2	1.6
NVDA US Equity	2016.1	5.0	0.7	0.6	1.1	(0.9)	0.9	21.3	62.2	3.5	13.8	1.3
현재가(USD): 104.7	2017.1	6.9	1.9	1.7	3.1	172.6	2.1	42.2	27.5	11.3	32.6	0.4
시가총액: 62.3	2018.1F	8.1	2.5	2.1	3.3	6.7	2.6	31.9	22.1	9.2	31.9	0.5
	2019.1F	9.1	3.0	2.4	3.9	18.6	3.2	26.9	17.9	7.5	25.7	0.6
Softbank Group	2014.3	6,666.7	1,077.0	520.3	437	31.4	1,976.9	17.9	8.2	4.8	29.4	0.5
9984 JP Equity	2015.3	8,504.1	918.7	668.4	562	28.7	2,041.3	12.4	8.5	2.9	28.0	0.6
현재가(JPY): 8,366	2016.3	9,153.5	999.5	474.2	402	(28.4)	2,400.8	13.0	7.7	2.4	17.4	0.8
시가총액: 9,208	2017.3F	8,971.6	1,151.1	904.8	872	116.7	2,596.8	9.6	7.7	2.9	30.6	0.5
	2018.3F	9,262.8	1,298.7	697.6	640	(26.6)	2,794.4	13.1	7.0	2.3	20.0	0.5
삼성전자	2014.12	200,653	26,413	18,695	126,305	(17.5)	47,344	10.0	3.1	1.2	11.2	1.7
005930 KS Equity	2015.12	201,867	29,241	22,416	157,967	25.1	49,954	11.4	4.1	1.5	12.5	1.6
현재가(원): 2,140,000	2016.12	235,818	50,169	36,051	256,893	62.6	69,887	8.3	3.5	1.5	17.8	1.9
시가총액(조원): 298.9	2017.12F	264,433	55,126	39,621	282,782	10.1	78,607	7.6	3.0	1.3	16.8	2.4
	2018.12F	277,655	56,611	40,824	291,413	3.1	83,168	7.3	2.7	1.2	15.1	2.6

주: 미국 국적 기업 4월 25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그룹은 4월 26일 종가 기준
 자료: 각 사, Bloomberg 추정치,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실적 호조에 중화권 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과 양호한 1분기 기업실적에 투자심리 개선
- ▶ 홍콩H지수는 0.4% 상승, 본토자금의 유입폭 확대와 1분기 국유기업의 양호한 실적이 호재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2% 상승,
보험, 시멘트, 환경보호, 인
테리어 등의 업종 강세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한 3,141p로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보험, 시멘트, 환경보호, 인테리어 등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1,971억위안으로 직전일대비 13% 증가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1분기 국유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부각됐다. 다만 금융 규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부각된 가운데 5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많은 것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금우고분(601992.sh)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승안 신구 테마주들이 재차 반등했고, 그 외에도 보험, 시멘트, 환경보호, 인테리어, 자동차 등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상해증시의 강세에 동조하며 심천성분지수와 차스닥 지수는 각각 0.4%, 0.1% 상승했다. 상승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중국 A주를 순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4% 상승,
소재, 금융, 유틸리티 등의
업종 상승

홍콩H지수는 0.4% 상승한 10,318p로 마감했다. 직전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 현상이 확대됐다. 본토 자금 유입 폭이 확대된 가운데 1분기 국유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소재, 금융,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다. A/H프리미엄은 본토 보험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118p로 상승했다. 한편 항셱지수는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샌즈차이나 등 카지노주들의 급등세에 힘입어 0.5% 상승한 24,578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4/26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40.85	0.20	-0.94	-3.93	1.20
심천종합	1,889.79	0.37	-2.21	-7.67	-4.03
차스닥	1,820.48	0.09	-1.35	-7.36	-7.22
홍콩H	10,317.63	0.44	3.34	-1.53	9.82
Shibor 7일물 금리(% , %p)	2.82	0.22	2.18	1.30	10.90
Shibor 1개월 금리(% , %p)	4.01	0.02	0.04	-10.03	21.33
중국국채 3년물(% , %p)	3.20	0.17	1.73	4.92	10.84
위안/달러 고시환율	6.8845	0.02	0.03	-	-0.76
역내 위안/달러	6.8916	-0.10	-0.05	-0.27	0.77
역외 위안/달러	6.8968	-0.12	-0.17	-0.60	1.15

주: 26일 오후 5시 58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증시 상승세 속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2,200선 안착에 성공

-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로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17년여 만에 사상 최초 6,000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 마감.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년여 만에 2,200P선 안착에 성공. 삼성전자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며 주가 상승을 주도. 코스닥도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연기금, 개인 매수세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효성,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비에이치아이,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동물백신 시장 진출 소식에 우진비앤지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무인 드론 이착륙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권 취득에 남성이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 가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대가차 강세를 보임. 또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발모신약 'OND-1'의 임상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상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오리엔트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스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2,200P선 돌파에 성공함에 따라 업황 호조 기대감에 증권주가 연일 강세를 보임. 반면,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던 GS홈쇼핑은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닷새 만에 하락전환했으며, 중국법인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오리온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효성(004800) ▶145,500 (+7.78%)	1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세 -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1%, 4.5%, 27.0% 증가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급등세 - 이는 섬유부문 판가 인상 및 산업자재부문 판매 물량 증가, 화학부문 PP 증설에 따른 원가 개선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짐
남성(004270) ▶2,195 (+7.86%)	무인 드론의 이착륙 제어 시스템 관련 특허권 취득에 급등세 - '무인 드론의 이착륙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권 취득 소식에 급등세 - 이는 방향의 전파 세기를 좌표로 만들어 위치를 계산하고, 전파를 제어하는 안테나와 좌표를 이용해서 무인 착륙 및 무인 이륙을 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이를 이용해 택배사업과 실내 무인경비시스템, 스마트 가이드 시스템 사업에 활용할 계획
증권주	코스피 2,200P선 돌파에 강세 - 코스피가 2,2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업황 호조 기대감에 연일 강세 - KTB투자증권(030210, +5.44%), 유진투자증권(001200, +4.30%), NH투자증권(005940, +3.85%), 교보증권(030610, +2.81%), 메리츠증권(008560, +2.75%)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이마트(139480) ▶238,000 (+2.81%)	- 중국 사업 철수 및 적자 점포 정리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서울반도체(046890) ▶19,200 (+5.21%)	- 일반조명 및 정보기술(IT) 등 주력 LED부문 성장과 자동차 LED부문 실적 증가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23% 급증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코웰패션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코웰패션 (033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 가능 - 언더웨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연 평균 11.7%)에 따른 수혜 전망 - 최근 제품 다각화를 통해 언더웨어 외 매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향후 브랜드 추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성장이 기대됨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6. 12A	250	35	20	216	15.8
	2017. 12F	311	48	33	366	9.3

- 편입 제외 종목: 엘앤케이바이오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제외 -3.2%)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티웨이홀딩스 (004870)	2,635 (+0.0)	2,635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대수 증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망 - 경쟁 저비용항공사 대비 비행기 사용 연차가 낮아 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영 효율성이 높음 - 일본과 동남아로의 노선 다양화를 통해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피해 최소화로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6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
대아티아이 (045390)	2,055 (+2.5)	2,005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투자로 신호제어 및 열차 자동 정지장치(ATP) 수주가 확대될 전망 - 지하철 1,2호선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보수 공사로 대형 수주 획득 가능성 - 2009년 이후 지연되고 있던 24조 규모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 공사가 2018년부터 시작될 전망
해성디에스 (195870)	18,600 (+22.0)	15,250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전장화 추세로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하는 리드프레임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며 초박막팔라듐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이 부각됨. 또한 주요 고객사가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자동체 반도체용 제품이 단가는 높고 물량 변동성은 낮아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전망됨 - 메모리 기판시장에서 세계 유일의 Reel to Reel(자동연속생산) 기술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에스원 (012750)	97,100 (+8.5)	89,5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과 건물관리 결합 판매의 시너지 확대 등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 - 삼성전자 평택공장 및 베트남 공장 건설로 상품판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가격 인상 효과로 통합보안 매출도 증가할 전망
GS리테일 (007070)	52,900 (+1.5)	52,10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편의점 신규 출점수는 1,200개로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외형성장과 마진 개선폭이 두드러질 전망 - 부실점포 정리로 슈퍼마켓 사업부의 영업적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 1인 가구 증가와 '혼밥' 문화 확산에 따른 편의점사업의 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유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파트론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파트론 (091700)	11,100 (-2.2)	11,350 (04/13)	887	67	51	979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8 사전예약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면 카메라 주요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예상 - 스마트폰의 스펙 향상과 IoT제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센서모듈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모듈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시장과 헬스케어 센서 시장으로 본격 진출 예상 				
오택 (067170)	11,200 (-1.3)	11,350 (04/06)	828	37	17	1,288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택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택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NAVER (035420)	807,000 (-0.2)	809,000 (03/03)	4,633	1,372	973	32,386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스냅챗' 상장에 따라 사진 중심의 메신저인 '스노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예상 - 인공지능경망 기반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에 이어 웹브라우저 '웨일', 음성비서 '클로바' 등 적극적인 R&D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기술플랫폼 업체로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SK텔레콤 (017670)	244,000 (+4.7)	233,000 (03/03)	17,402	1,773	2,032	28,774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6조원, AI,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차세대 ICT 사업에 5조원, 총 합계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 CEO교체에 함께 M&A위주의 경영전략 변화, SK플래닛 정상화, 연결실적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의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씨엠에스에듀 (225330)	27,300 (+3.2)	20,450 (02/07)	66	14	11	2,567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되어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전망 -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급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 4%를 상회하는 배당 수익률 예상 				
청담러닝 (096240)	18,250 (+0.8)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SK텔레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어: 이번 호황 사이클이 기대되는 이유

■ 호황기에 진입한 타이어 업황

타이어 수요는 이미 호황기에 진입했다. 선행지표인 고무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고 동행지표에 해당하는 제품가격 인상이 올해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축적이,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 증가가 주도할 전망이다. 수요 개선으로 고무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추가적인 가격인상도 예상된다.

■ 기존 사이클 대비 장점 3가지

이번 호황기는 기존 사이클에 비해 3가지 점이 긍정적이다. 먼저 믹스 개선이 강력하다. 신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던 고성능타이어(UHPT)가 교체용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여기에 SUV 판매비중이 높아지며 평균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점도 믹스 개선에 긍정적이다. 둘째, 공급과잉이 완화된다. 이는 타이어 업체들이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부과 이후 중국 내 설비증설 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재료 환경이 우호적이다. 유동성 공급으로 고무가격이 단기 급등했던 2009~2011년과 달리 이번 호황기에는 tapering 기조로 투기적 수요가 억제될 전망이다.

■ 타이어 투자 늦지 않았다

원재료비 상승은 가격인상을 통해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 이는 고무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사이클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호황기에서는 원재료 비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믹스 개선이 강력하게 전개되면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제고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국내 타이어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황기의 최대 승자가 될 한국타이어를 최선호주로 추천하며 목표주가 77,000원을 유지한다(3사 모두 12MF PER 10배 적용). 넥센타이어는 목표주가 17,500원과 차선호주를 유지하며 금호타이어는 정상화를 가정해도 여전히 주가가 비싸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중립(유지)

종가(4/25): 430,000원

낮아진 제련수수료가 일부만 반영된 실적

■ What's new : 예상을 상회한 건 맞으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363억원으로 우리 추정치를 10.8%, 컨센서스를 13% 상회했다. 생산량에 비해 출하량이 적어 매출액은 예상에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률이 15%로 높았다. 그런데 2017년 제련수수료가 3월말에 결정되어 1월과 2월은 2016년 제련수수료를 기준으로 원재료 원가가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원재료 원가가 과소 계상되었고 금액은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제거하고 보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우리 추정치를 6.2%, 컨센서스를 8.2% 상회한 셈이다. 한편 과소 계상된 원재료비 100억원은 2분기에 반영된다.

■ Positives : 2분기 판매량은 늘어날 전망

1분기 아연과 연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적다. 1분기 가격이 강세다 보니 구매 활동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3월부터 아연 가격이 하락해 2분기 판매 가격은 하락이 예상된다. 구매 활동을 자극해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늘면서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11.9% 증가한 1조 7,615억원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 1분기가 peak

아연 가격이 3월 이후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은 아연 가격이 하락해도 제련수수료가 하락하지 않는다. 제련수수료만 보면 가격 약세가 부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free metal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Free metal은 제련사가 광산으로부터 정광을 구매할 때 정상 가격의 85%(payable)만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제련사는 정광을 15%(free metal)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아연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free metal이 감소한다. 그리고 1분기는 낮아진 제련수수료가 3분의 1만 반영되었다. 아연 가격이 다시 1분기 수준으로 상승한다해도 이익률이 1분기보다 낮을 것이다. 게다가 1분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실적에 우호적이었다. 1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려면 아연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1분기보다 높아야 한다.

■ 결론 : 상승여력 제한적, '중립' 투자의견 유지

우리의 실적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다. 2017년 연결 영업이익이 13.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른 제련사보다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비철 시장이 제련사에 불리한 'Miner market'이라는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 ROE가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과거보다 PER과 PBR이 낮아진 현재 상황이 합리적이다.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며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컨센서스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79	1,574	(11.5%)	1,595	(3.3%)	16.4%	6,671	6,425
영업이익	213	236	10.8%	209	(0.0%)	26.2%	871	812
영업이익률	12.0%	15.0%	3.0%p	13.1%	0.5%p	1.2%p	13.0%	12.6%
세전이익	220	230	4.5%	212	(4.2%)	16.5%	885	840
순이익	165	167	0.9%	160	(7.6%)	15.1%	659	62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롯데칠성(005300)

매수(유지)
목표가: 2,250,000원(유지)
종가(4/25): 1,611,000 원

1Q17 Preview: 위험보다 기회가 커지는 구간

■ 영업이익영업이익 컨센서스 부합 예상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3.6% 감소해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우선 음료는 가격 인상이 지연돼 물량 증가 만으로 2%대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익성이 좋은 탄산이 3%, 생수가 12%, 커피가 4% 성장해 포장재 등 원가 상승 부담을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류는 위스키 등 기타 주류의 감소가 계속됐으나 소주가 5% 가량 성장하고 맥주는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해 매출액이 역시 2~3%대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쟁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판매비 절감은 어려워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7.0%에서 6.6%로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

■ 맥주 신제품 성공할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에 제 2 맥주공장에서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품은 맥아 함량이 국내 시장의 80% 이상인 standard lager 타입(하이트나 카스)의 70%보다 높은 80%로 예상되며, 가격은 이들 제품과 같거나 약간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케팅 컨셉이라 판단된다. 다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인 클라우드대비 비가정용(음식점 등) 판매를 늘려야 하는 만큼 맥주 마케팅비는 지난해 399억원에서 700억원(중전 추정치 6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쟁제품과 차별화 포인트를 어필해 내년부터 마케팅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맥주사업은 고정비 부담이 커 동사와 같이 재무 여력이 풍부한 회사의 공격은 경쟁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동사의 맥주 점유율 상승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확률이 크다.

■ 인적분할로 투명성 향상, 자산가치 부각 기대

맥주 초기 마케팅비를 과거보다 크게 가정해 내년까지 이익 전망을 하향하나, 2019년 이후 전망에 큰 변화가 없고 일부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SOTP로 산출한 목표주가는 2,250,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맥주 신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있으며, 음료 가격 인상 지연도 장기간 주가 하락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와 함께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될 경우 경영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룹의 지주사 전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보이는 롯데리아 등 비상장사의 IPO로 투자자산의 가치가 재부각될 확률이 높으며, 제 2롯데월드 완공으로 서초동부지 개발 관련 정치적 부담도 줄었다는 평가다. <표 5>와 같이 인적 분할 시 영업회사는 peer그룹의 PER, 투자회사는 PBR 0.7배를 적용할 경우 현주가 대비 상승 여력은 16~47%로 분석된다. 위험보다는 기회가 많아 매집을 권고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229	143	100	73,389	433.6	276	30.2	13.2	1.3	4.3	0.4
2016A	2,369	149	69	51,073	(30.4)	286	28.6	10.1	0.8	3.0	0.7
2017F	2,521	150	87	64,166	25.6	308	25.1	11.1	0.9	3.7	0.6
2018F	2,718	174	106	77,972	21.5	351	20.7	10.0	0.9	4.4	0.7
2019F	2,893	208	132	97,384	24.9	387	16.5	9.0	0.9	5.3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산업(012630)

매수(유지)

목표가: 54,000원(유지)

종가(4/25): 45,000 원

종합 디벨로퍼에게 PBR 1배는 바닥

■ What's new: 컨센서스 상회, 전 부문 원가 개선

1분기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64% 증가하며 예상을 크게 상회했다. 전 부문의 원가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자체사업 원가율은 69%(-11%p YoY), 도급주택은 82%(-4%p YoY) 등, 초기 분양률 상승과 원가 절감이 컸다. 별도기준 순현금은 3,940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연결 순차입금은 자회사들 실적 개선으로 1천억원 감소한 290억원을 기록했다.

■ Positives: 민자SOC 확대로 수주 성장 이어가

자체사업 매출은 전년대비 18% 감소했음에도 원가율 개선으로 이익 기여가 컸다. 전년 1분기에는 대구 월배 2차 등 저마진 자체사업 매출이 마지막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번 분기에는 11월 준공될 수원 5차와 2016년 분양한 수원 망포, 평택비전 등 원가율 70% 이하 사업지의 기여가 커졌다. 토목 매출 비중은 8%에 불과했지만 원가율이 3%p 개선됐음은 의미가 크다. 부산 신항만(도급액 5,600억원), 지게남산 도로(2,300억원) 등 민자SOC 기성이 확대돼 원가율 87.1%(-3%p YoY)를 기록했다. 관급 토목공사에서 원가율이 악화되는 타사들과 뚜렷한 차별점이다. 이어 '통영 LNG 민자발전'은 올 하반기, GTX A노선은 2018년 말 착공 예정이다. 두 프로젝트 각각 1조원씩 수주가 예상된다. 2015년 '민자사업 개정안' 발표 이후, 민자SOC의 사업성이 높아져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산업은 2000년대 초 민자SOC의 key player였던만큼 빠른 포트폴리오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 Negatives: 주택공급 규제는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주택공급 목표는 2.6만세대(작년 1.7만세대)다. 현재까지 분양은 2,500세대로 하반기 공급이 집중된 상태라, 아직 무난한 달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선 이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산업은 최상위 재무구조로 우선적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건설사다. 노련한 개발역량과 체력으로 불확실성에 대비가 잘 돼 있다는 점에서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다.

■ 결론: 종합 디벨로퍼에게 PBR 1배는 싸다

매년 3천억원을 용지에 투자하고 있으며 SOC 사업 출자액도 작년 400억원에서 올해는 1,6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GTX 진행이 빨라지면 출자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본사 기준 0.4조원의 순현금 구조라 투자여력이 높다.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중 하나로 민자 SOC사업 위주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GTX를 비롯, 주요 민자SOC사업에 활발한 제안을 해 온 만큼 본격 성과를 낼 것이다. 우리는 현대산업이 주택 모멘텀 플레이의 대상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039	1,133	9.1	1,127	(18.9)	15.6	5,537	5,322
영업이익	110	141	28.1	112	9.8	64.3	587	585
영업이익률(%)	10.6	12.4	1.8	10.0	3.3	3.7	10.6	11.0
세전이익	109	138	26.1	110	28.3	103.2	562	569
순이익	71	99	39.4	73	44.3	138.9	385	39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여영상(yeongsang.yeo@truefriend.com) ☎ 02-3276-6159

GS홈쇼핑(028150)

중립(유지)

종가(4/25): 223,500원

일회성 제외하면 예상수준 실적

■ What' s new : 1Q17 영업이익 427억원(+35.0% YoY)

GS홈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0% 늘어난 427억원을 기록했다. 일회성 이익인 부가세 환급금 109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제거하면, 실질 영업이익은 318억원(+0.5% YoY)으로 계산된다. 우리의 영업이익 추정치인 330억원을 3.7% 하회하는 실적이다.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어난 1조 18억원을 기록했다. TV쇼핑 부문이 7.6%, 모바일쇼핑이 17.2% 성장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TV쇼핑 부문은 다시 기존의 TV쇼핑과 T커머스로 나뉘는데, 기존의 TV쇼핑은 무형상품, 렌탈이 늘어나며 4.1% 증가율을 기록했고 T커머스는 전년동기 99억원에서 263억원(+165.7% YoY)로 크게 증가했다.

■ Positives : 안정적 영업실적

GS홈쇼핑의 영업이익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TV쇼핑 취급고는 T커머스와 모바일쇼핑에도 불구하고 4%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flat수준의 성장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외형성장이 무형상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상품마진은 하락하고 있으며, 외형성장이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 모바일쇼핑의 손익은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체 영업손익 방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 Negatives : T커머스의 실적기여는 아직, 해외사업 손상차손

T커머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규모도 미미하고, 현재는 오히려 SO수수료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1분기 SO수수료는 전년동기대비 약 10.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T커머스 사업자들의 채널경쟁으로 IPTV SO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GS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 또한 본격적으로 취급고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큰 폭의 SO수수료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GS홈쇼핑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했다. 인도와 태국 등에서 손상차손 약 100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결론 : 투자의견 중립 유지

T커머스 확대에 따른 취급고 증가 효과보다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요인이 현재로서는 더 부담이다. 중기적 관점에서 홈쇼핑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바일쇼핑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크지 않으며, 온라인쇼핑과의 경쟁에서 홈쇼핑의 모바일 채널이 경쟁우위를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GS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1.6배에 거래되고 있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90	279	(4.1)	291	(4.3)	(1.2)	1,149	1,164
영업이익	33	43	29.4	32	(5.1)	35.0	133	133
영업이익률(%)	11.4	15.3	4.0	10.9	(0.1)	4.1	11.6	11.4
세전이익	37	38	3.4	32	(17.5)	(10.6)	144	149
순이익	28	27	(2.4)	25	(23.8)	(22.5)	110	11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H(036030)

중립(유지)

종가(4/25): 6,900원

성장성 높으나 수익성은 부진

■ What's new : 1분기 수익성은 추정치 하회

1분기 성장성은 높았으나 수익성은 부진했다. 매출액은 544억원으로 우리의 추정치를 1.8%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51.7% 하회했다. 매출액은 데이터 홈쇼핑 사업인 T커머스 성장 주도로 전년동기대비 22.9% 늘었다. T커머스는 SK브로드밴드 채널이 40번대에서 25번으로 이전된 데다 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전년동기대비 86% 늘었다. 콘텐츠 유통 매출도 럭키, 마스터 등 영화 VOD 구매 증가와 애니메이션 등 신규 사업으로 10.7% 증가했다. 하지만 KT그룹의 ICT서비스 플랫폼 사업인 스마트솔루션 매출은 일부 사업의 지연으로 1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스마트솔루션의 매출 지연과 송출 수수료 인상으로 23.7%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9%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했다.

■ Positives : T커머스 성장 지속, 연동형 서비스 성사 여부가 관건

T커머스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10개 T커머스 업체 중 12년 8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KTH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TH의 17년, 18년 T커머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72.2%, 55% 증가할 것이다. 현재는 주문형비디오(VOD) 형태 위주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어 기존 홈쇼핑과 차이가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출시될 연동형 서비스(TV 화면의 상품을 리모컨으로 검색·구매·결제)가 실적으로 이어져야 T커머스는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KTH는 17년 4분기 이후에 연동형 T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인 연동형(양방향) T커머스가 성공하면 기존 홈쇼핑과 차별화되며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Negatives : 투자 확대 시 수익성 호전 지연

T커머스 사업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늘어나고 있다. MD(상품기획), PD 등 인원 증가로 17년 인건비 및 용역비가 전년대비 21% 증가할 전망이다. VOD T커머스는 17년 하반기에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연동형 T커머스 출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익성 개선은 다소 지연될 것이다. 연동형 T커머스는 기회 요인이나 상품 직접 확보 및 판매는 부담 요인이다.

■ 결론 : 중립의견 유지

KTH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T커머스 매출 호조로 성장성은 높으나 관련 비용 증가, 투자 확대로 수익성이 부진하다. Valuation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향후 연동형 T커머스의 성과와 수익성 개선이 관건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3.4	54.4	1.8	NA	(9.8)	22.9	260.5	NA
영업이익	2.1	1.0	(51.7)	NA	(49.2)	(23.7)	7.2	NA
영업이익률	3.9	1.9	(2.1)	NA	(1.5)	(1.1)	2.7	NA
세전이익	2.8	1.1	(58.5)	NA	22.4	(42.1)	4.5	NA
순이익	2.2	0.9	(57.9)	NA	(64.8)	(31.5)	3.7	NA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이노베이션(096770)

매수(유지)
목표가: 260,000원(유지)
종가(4/25): 170,000원

놀라운 실적,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

■ What's new : 5년내 최대 분기 순이익 기록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1조원으로,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13%, 20% 상회했다. 화학과 정유 부문의 실적 강세가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88%,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해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24%, 36% 상회했다. E&P자산 손상차손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 강세를 반영해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6% 상향한다. 2분기에도 놀라운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9% 늘어나, 컨센서스를 31% 상회할 전망이다.

■ Positives : 화학부문 사상 최대 분기실적 달성

1분기 화학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8% 개선돼 추정치를 58% 상회했다. 이번 분기 실적부터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인천석유화학 사업구분이 변경됐다. 기존 SK이노베이션의 석유부문에 100% 반영되던 SK인천석유화학 실적을 석유, 화학 사업으로 분리하여 해당 사업부에 포함시켰다. 사업구분 변경에 따라 화학부문에 추가된 1,080억원의 영업이익과 200억원의 재고평가이익을 제외하고서도, 1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12% 상회하는 수준이다. 윤활유 사업부 영업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10% 개선됐다. Group II, III 윤활기유의 타이트한 수급 덕분이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의 래깅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윤활기유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17% 밀돌았다.

■ Negatives : 정유부문 전분기 대비 이익 줄었지만, 여전히 기대 이상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했다. 1) 3월 유가 급락으로 1개월 후행 정제마진이 악화됐고, 2) 인천석유의 화학사업 이익(1,080억원)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인천석유 영업이익과 예상치를 100억원 가량 상회한 재고평가이익을 더할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13%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정유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8% 증가해 실적의 key driver로 작용할 것이다. 2분기 재고평가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1분기 1,600억원 인식)되지만 정제마진이 대폭 개선되며 2분기 호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다. 2분기 현재까지 평균 기준 1개월 후행 정제마진은 이미 전분기 대비 42% 개선된 배럴당 8.7달러다. 향후 정제설비 증설은 제한적으로, spot 정제마진의 구조적 개선이 기대된다.

■ 결론 : 구조적 성장 전망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60,000원을 유지한다. 1) 수요붕괴 수준으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고, 2)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향후 수년간 석유수요 증가가 정제설비 공급을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밸류에이션 multiple은 여전히 역사적 저점 수준인 반면, 높은 배당 수익률과 구조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정제마진이 상승하기에 앞서 추가 매수를 추천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1,108	11,387	2.5	11,653	13.0	20.4	46,830	47,648
영업이익	886	1,004	13.3	837	18.3	18.9	4,412	3,033
영업이익률	8.0	8.8	0.8	7.2	0.4	(0.1)	9.4	6.4
세전이익	945	1,163	23.1	821	231.0	57.2	4,449	2,755
순이익	682	847	24.3	621	488.0	52.4	3,218	2,03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

매수(유지)
목표가: 58,000원(유지)
종가(4/25): 52,400원

제품가격 모멘텀 둔화 중

■ What's new : 사상 최고 영업이익률 39%

지난 1분기 매출액은 6.3조원, 영업이익은 2.5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9%로 SK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높았다. 1분기 디램 및 낸드 출하량이 전분기대비 각각 5%, 3% 감소해 당초 가이드를 소폭 하회했음에도 제품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 영업이익률이 39%로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됐다. 2분기에도 제품가격 상승이 지속돼 영업이익률은 42%까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률 개선속도는 2Q16 이후 1Q17까지와는 달리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들고 공정전환 둔화로 원가절감폭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 Positives : 2Q17 영업이익 2.9조원으로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

제품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로 2Q17 영업이익이 2.9조원으로 전분기대비 16% 증가할 것이다. 2분기 디램과 낸드 bit growth는 각각 5%, 1%로 전망한다. 스마트폰과 PC 완제품수요 및 채용량 증가율 둔화로 수요증가율이 크지 않겠지만 공급도 늘지 않아 2분기까지タイト한 제품수급이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가격상승폭은 줄어들어 디램은 6%, 낸드는 4% 상승할 전망이다. 상반기 가격 강세로 2017년 영업이익은 11.4조원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 스마트폰, PC, 서버 등 완제품 수요회복이 필요

연초부터 스마트폰, PC 등의 완제품 수요부진이 나타나면서 상반기 디램 수요도 예상보다 약한 상황이다. 스마트폰은 중국스마트폰 수요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PC의 경우 지난 1분기 수요가 2.4% 감소해 예상보다 약했다. 수요부진으로 완제품업체들의 완제품 및 부품재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2분기부터 나타났던 부품수요 및 가격강세는 완제품수요 회복 없이 진행됐다. 낮은 가격에 기반한 재고 restocking과 채용량 증가가 배경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완제품 수요회복 없이 부품수요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완제품 수요회복의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8,000원 유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하지만 완제품수요 부진으로 디램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완제품수요 회복이 나타나야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0개월간의 제품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수요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목표주가 58,000원은 2017년 추정 BPS에 목표PBR 1.3배를 적용했다.

(단위: 십억원, %, %p)

	1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956	6,290	5.6	5,974	17.4	72.0	27,131	25,217
영업이익	2,346	2,468	5.2	2,269	60.6	339.2	10,627	9,516
영업이익률	39.4	39.2	(0.2)	38.0	10.6	23.9	39.2	37.7
세전이익	2,306	2,370	2.8	2,291	50.9	324.8	10,467	9,433
순이익	1,845	1,898	2.9	1,879	16.7	327.3	8,354	7,51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4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20(목)	4/21(금)	4/24(월)	4/25(화)	4/26(수)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149.15	2,165.04	2,173.74	2,196.85	2,207.84	
	등락폭	10.75	15.89	8.7	23.11	10.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5(1)	424(3)	287(0)	534(0)	531(1)
		하락(하한)	329(0)	356(0)	509(0)	255(0)	257(0)
	ADR	104.53	103.04	102.80	103.00	106.56	
	이격도	10 일	100.41	101.09	101.31	102.04	102.17
		20 일	99.90	100.65	101.01	102.01	102.42
	투자심리	50	6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268	282	375	276	394
	거래대금	(십억 원)	5,133	4,838	4,403	5,107	5,246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35.8	634.96	626.62	632.57	635.11	
	등락폭	-0.19	-0.84	-8.34	5.95	2.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2)	490(0)	227(1)	785(2)	647(1)
		하락(하한)	636(0)	606(0)	902(0)	304(0)	450(0)
	ADR	103.24	103.08	101.73	102.66	103.04	
	이격도	10 일	101.34	101.18	99.74	100.51	100.69
		20 일	102.02	101.67	100.18	100.97	101.20
	투자심리	6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주)	875	701	709	821	735
	거래대금	(십억원)	3,696	3,201	3,080	2,974	2,82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282.9	1,840.5	1,092.4	399.9	69.6	200.5	141.3	13.0	268.1	47.8
	매도	2,651.0	1,552.0	1,010.6	302.8	127.7	283.9	84.3	12.8	199.0	50.1
	순매수	-368.1	288.5	81.8	97.2	-58.2	-83.4	57.0	0.2	69.1	-2.3
	4월 누계	-883.1	470.2	216.9	173.6	-52.9	-233.7	109.9	-22.1	242.0	196.0
	17년 누계	-3,569.4	5,950.6	-4,731.0	-2,373.9	-488.0	-2,741.7	177.3	-376.3	1,071.4	2,349.8
코 스 닥	매수	2,468.0	238.3	115.6	26.6	6.7	28.9	16.1	1.1	36.2	20.4
	매도	2,460.1	204.0	148.5	53.2	10.8	34.7	22.9	1.5	25.5	29.6
	순매수	7.8	34.3	-32.9	-26.7	-4.1	-5.8	-6.8	-0.3	10.8	-9.2
	4월 누계	-232.9	289.6	355.4	37.2	43.5	41.7	66.5	9.8	156.9	-412.2
	17년 누계	1,433.1	341.3	-1,207.2	-298.4	-274.7	-412.7	-57.4	-25.7	-138.3	-567.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8,679	서비스업 -19,247
증권	7,642	통신업 -16,967
운수창고	1,963	전기전자 -16,179
TIGER 200	11,915	KODEX 레버리지 -22,023
현대차	7,281	삼성전자 -13,683
KODEX 200	4,327	SK텔레콤 -11,169
삼성중공업	2,982	한국전력 -7,875
삼성증권	2,920	NAVER -6,56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4,085	보험업 -16,186
화학	16,849	통신업 -14,220
증권	14,495	전기가스 -3,070
삼성전자	18,628	KB손해보험 -17,159
KODEX 200	10,108	SK텔레콤 -13,496
효성	8,680	NAVER -12,683
현대차	6,744	한국전력 -4,286
NH투자증권	6,470	두산밥캣 -2,77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1,453	미분류 -56,536
건설업	865	서비스업 -1,469
화학	660	전기전자 -1,005
KBSTAR 200선물인버스2X	3,068	KODEX 레버리지 53,684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1,749	TIGER 레버리지 -3,461
대림산업	1,288	KODEX 200 -2,178
ARIRANG 우량단기채권	873	TIGER 200 IT -1,568
현대차	833	LG이노텍 -1,30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3,248	미분류 -98,752
기계	2,238	서비스업 -16,637
운수장비	1,904	통신업 -9,350
현대미포조선	3,817	TIGER 200 -36,076
삼성전기	1,837	KODEX 삼성그룹 -21,742
대한항공	1,700	KBSTAR 200 -17,443
LG디스플레이	935	KODEX 은행 -7,740
삼성생명	929	SK텔레콤 -7,71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81,983	통신업 -55,728
운수장비	59,828	서비스업 -37,911
화학	32,110	전기가스 -13,351
삼성전자	62,422	SK텔레콤 -45,859
현대차	47,644	NAVER -31,623
TIGER 200	26,091	한국전력 -13,327
SK하이닉스	14,390	LG이노텍 -7,593
효성	14,322	KODEX 200선물인버스2X -7,267
현대글로벌비스	9,265	KODEX 인버스 -6,980
NH투자증권	8,418	TIGER 200선물인버스2X -6,661
현대미포조선	7,782	KT&G -6,278
미래에셋대우	7,319	두산밥캣 -5,773
두산인프라코어	7,199	KT -5,15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72,898	의약품 -16,534
전기전자	69,714	미분류 -13,620
운수장비	32,467	철강금속 -9,347
SK하이닉스	83,125	삼성전자 -46,028
NAVER	19,508	TIGER 200 -25,340
효성	17,727	아모레퍼시픽 -14,882
LG전자	15,596	엔씨소프트 -12,109
SK이노베이션	14,507	삼성바이오로직스 -11,802
두산밥캣	13,392	현대제철 -9,203
삼성엔지니어링	10,015	롯데케미칼 -8,074
하나금융지주	9,551	삼성생명 -6,601
삼성SDI	8,769	OCI -5,201
S-Oil	8,524	유한양행 -4,35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829	방송서비스	-3,203	반도체	5,019	방송서비스	-4,006
계약	1,376	기계,장비	-2,646	계약	2,889	음식료,담배	-1,048
오락,문화	995	IT부품	-2,576	인터넷	2,377	디지털컨텐츠	-713
서울반도체	2,036	CJ E&M	-2,525	카카오	2,080	CJ E&M	-4,206
NHN벅스	1,749	매일유업	-2,034	모두투어	1,891	매일유업	-1,146
덱스터	988	에스에프에이	-1,711	SK머티리얼즈	1,421	유니셈	-76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937	완리	-1,660	테스	1,204	NHN벅스	-646
세코닉스	911	나무가	-808	나무가	1,159	SKC코오롱PI	-42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71	미분류	-402	오락,문화	571	방송서비스	-2,806
화학	108	교육	-291	IT부품	266	음식료,담배	-1,163
도매	85	소프트웨어	-97	계약	254	반도체	-391
에스에프에이	161	에스앤씨엔진그룹	-318	휴젤	425	CJ E&M	-2,072
원익홀딩스	133	룽투코리아	-291	KH바텍	416	매일유업	-855
리드코프	87	한글과컴퓨터	-172	셀트리온	317	테스	-845
셀트리온	80	에프엔에스테크	-99	이오테크닉스	302	나무가	-572
나무가	72	웨이포트	-74	서울반도체	299	CJ오쇼핑	-41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945	방송서비스	-16,771	반도체	13,372	계약	-5,464
화학	2,534	미분류	-5,209	인터넷	12,495	방송서비스	-3,068
사업지원	2,054	계약	-5,176	소프트웨어	6,876	도매	-1,472
서울반도체	2,977	CJ E&M	-13,973	서울반도체	12,588	셀트리온	-7,674
덱스터	2,342	카카오	-3,395	카카오	11,812	CJ E&M	-2,088
모두투어	2,036	매일유업	-3,395	안랩	7,174	해마로푸드서비스	-1,989
NHN벅스	1,925	셀트리온	-2,599	에스에프에이	3,831	GS홈쇼핑	-1,88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150	GRT	-2,492	SKC코오롱PI	3,039	홈캐스트	-1,474
아이원스	901	휴젤	-2,177	이오테크닉스	1,925	AP시스템	-1,460
메디톡스	849	테스	-1,981	와이엠씨	1,720	덱스터	-1,360
사람인에이치알	822	에스에프에이	-1,669	디오	1,262	모두투어	-1,311
주성엔지니어링	776	완리	-1,660	솔브레인	1,256	SK머티리얼즈	-1,224
성광벤드	767	GS홈쇼핑	-1,581	룽투코리아	1,194	보성파워텍	-1,15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양통상	34 일	세이브존I&C	24 일	대우스팩2호	17 일	리노공업	38 일
태영건설	26 일	삼정펠프	23 일	유성티엔에스	16 일	SIMPAC Metal	21 일
WISCOM	25 일	광주신세계	19 일	심택	13 일	클리오	20 일
조선내화	25 일	일성신약	18 일	동부제4호스팩	11 일	누리텔레콤	16 일
계룡건설	20 일	KPX그린케미칼	14 일	이글루시큐리티	11 일	지트리비엔티	14 일
유한양행	19 일	부산가스	13 일	에이치엔티	10 일	씨젠	13 일
일동제약	17 일	유성기업	13 일	제우스	10 일	인크로스	12 일
한화	17 일	KC코트렐	12 일	영우디에스피	9 일	에코마케팅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06,743	SK하이닉스	259,165	카카오	29,647	휴젤	18,293
롯데쇼핑	77,127	NAVER	93,627	서울반도체	10,620	서울반도체	16,628
KB손해보험	69,365	LG전자	62,645	SK머티리얼즈	7,177	컴투스	8,900
삼성전자	45,385	신한지주	59,939	연우	4,270	안랩	8,879
현대차	39,939	LG생활건강	57,023	인바디	3,339	에스에프에이	7,249
NH투자증권	37,350	하나금융지주	56,372	아프리카TV	3,335	메디톡스	6,911
롯데케미칼	33,166	현대차	46,184	유진기업	3,306	SKC코오롱PI	5,959
TIGER 200	33,021	LG화학	44,295	더블유게임즈	2,979	디오	4,76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81,983	69,714	151,697	반도체	758	13,372	14,129
운수장비	59,828	32,467	92,295	화학	2,534	5,109	7,643
화학	32,110	23,231	55,340	오락,문화	2,945	190	3,135
SK하이닉스	14,390	83,125	97,515	서울반도체	2,977	12,588	15,564
현대차	47,644	6,373	54,018	SKC코오롱PI	519	3,039	3,558
효성	14,322	17,727	32,048	이오테크닉스	467	1,925	2,392
SK이노베이션	6,658	14,507	21,165	NHN벅스	1,925	28	1,952
LG전자	3,081	15,596	18,676	와이엠씨	109	1,720	1,829
NH투자증권	8,418	6,078	14,496	동성화인텍	551	1,133	1,684
두산인프라코어	7,199	5,114	12,313	디오	274	1,262	1,536
현대미포조선	7,782	4,087	11,869	솔브레인	236	1,256	1,492
S-Oil	2,679	8,524	11,203	에스엠	411	1,073	1,483
한화	4,273	6,499	10,773	메디톡스	849	631	1,48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새론오토모티브	38 일	진양화학	13 일
태광산업	32 일	KR모터스	13 일
코오롱글로벌	27 일	키움증권	11 일
대한전선	25 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11 일
한국전력	22 일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9 일
SJM홀딩스	18 일	STX엔진	9 일
한양증권	18 일	OCI	8 일
E1	17 일	대한해운	8 일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PN풍년	28 일	골프존	30 일
효성오앤비	22 일	제이씨케미칼	21 일
SIMPAC Metal	16 일	아이디스	18 일
동양파일	14 일	포스코엠텍	18 일
메가스터디교육	14 일	넥슨지티	17 일
휴맥스홀딩스	14 일	피제이메탈	11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13 일	아프리카TV	11 일
리노공업	13 일	심텍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NAVER	-66,458	롯데케미칼	-34,125
SK텔레콤	-54,943	TIGER 200	-30,962
KODEX 200선물인버스2X	-52,481	현대제철	-22,637
한국전력	-45,302	KODEX 200	-20,687
엔씨소프트	-32,902	삼성바이오로직스	-17,299
KODEX 인버스	-32,033	한화생명	-13,864
LG화학	-29,228	삼성생명	-13,475
신한지주	-28,720	KODEX 인버스	-11,644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CJ E&M	-23,609	셀트리온	-20,275
휴젤	-12,859	파라다이스	-8,052
셀트리온	-11,905	AP시스템	-7,042
매일유업	-6,768	아프리카TV	-6,299
서부T&D	-6,374	CJ E&M	-6,184
에스에프에이	-6,158	롯데코리아	-6,013
리노공업	-4,799	웹젠	-4,357
CJ오쇼핑	-4,654	인터플렉스	-4,16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55,728	2,884	-52,844
의약품	-7,462	-16,534	-23,995
미분류	2,585	-13,620	-11,035
SK텔레콤	-45,859	-701	-46,560
아모레퍼시픽	-1,409	-14,882	-16,291
삼성바이오로직스	-3,941	-11,802	-15,743
현대제철	-626	-9,203	-9,829
OCI	-1,073	-5,201	-6,274
고려아연	-4,260	-1,413	-5,673
오리온	-4,164	-1,191	-5,356
KT	-5,153	-25	-5,178
LG화학	-2,736	-1,277	-4,014
한미약품	-2,384	-457	-2,841

종 목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16,771	-3,068	-19,840
제약	-5,176	-5,464	-10,640
미분류	-5,209	-646	-5,856
CJ E&M	-13,973	-2,088	-16,061
셀트리온	-2,599	-7,674	-10,273
매일유업	-3,395	-1,002	-4,397
GS홈쇼핑	-1,581	-1,888	-3,469
휴젤	-2,177	-372	-2,550
테스	-1,981	-334	-2,315
해마로푸드서비스	-71	-1,989	-2,060
유니셈	-1,285	-726	-2,012
홈캐스트	-22	-1,474	-1,496
엠씨넥스	-641	-780	-1,42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7	99,896
SK하이닉스	499	25,954
아모레퍼시픽	73	21,290
현대모비스	72	16,398
NAVER	18	14,632
POSCO	54	14,578
신한지주	263	12,824
현대차	85	12,35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81	7,230
카카오	46	4,127
안랩	35	2,952
CJ E&M	23	1,962
파라다이스	123	1,749
휴젤	3	1,243
SK머티리얼즈	5	846
파워로직스	139	742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89	8,515,497
SK하이닉스	61,747	3,235,525
NAVER	2,087	1,700,945
하나금융지주	32,726	1,305,768
아모레퍼시픽	4,392	1,289,095
현대차	8,700	1,257,147
LG생활건강	1,307	1,118,893
POSCO	3,891	1,058,42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9,877	2,656,069
카카오	7,791	707,393
로엔	3,293	297,361
메디투스	538	267,253
바이로메드	2,496	231,919
파라다이스	13,421	190,579
코미팜	4,844	170,984
컴투스	1,381	169,05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7,771	건설업	-2,486
전기전자	2,790	서비스업	-2,311
증권	1,904	화학	-1,855
팬오션	7,386	KB금융	-3,591
SK하이닉스	4,427	대우건설	-2,480
두산중공업	2,141	KODEX 200	-1,370
미래에셋대우	1,773	호텔신라	-1,071
우리은행	1,309	TIGER 200	-890
기아차	995	LG전자	-827
맥쿼리인프라	995	기업은행	-778
한국전력	986	삼성엔지니어링	-728
DGB금융지주	808	두산인프라코어	-628
SK증권	785	LG디스플레이	-6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5,406	제약	-1,002
오락,문화	1,436	음식료,담배	-527
반도체	1,178	인터넷	-239
이화전기	2,744	셀트리온	-767
에스맥	1,645	알에프텍	-384
파라다이스	1,200	AP시스템	-351
파트론	611	코미팜	-324
KD건설	595	바이넥스	-280
CMG제약	535	카카오	-274
서울반도체	528	테스	-271
GMR 머티리얼즈	466	팜스토리	-242
에스마크	404	바이온	-234
유지인트	377	인바디	-21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20(목)	4/21(금)	4/24(월)	4/25(화)	4/26(수)
외국인	6,239.1	758.7	1,580.8	73.9	234.2	335.5	648.6	288.5
기관계	-4,649.2	298.7	42.0	223.6	89.9	-72.4	-281.0	81.8
(투신)	-2,825.1	-317.1	-220.9	-66.6	40.2	-28.4	-82.7	-83.4
(연기금)	1,174.5	335.1	326.7	101.1	68.4	12.8	71.9	72.5
(은행)	-376.0	-21.8	-0.8	4.7	-9.9	-0.5	4.6	0.2
(보험)	-546.1	-111.0	-101.6	12.6	19.5	-57.5	-18.1	-58.2
개인	-3,937.5	-1,251.2	-1,578.0	-276.1	-316.5	-249.5	-367.8	-368.1
기타	2,347.5	193.7	-44.8	-21.4	-7.6	-13.6	0.2	-2.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4/19(수)	4/20(목)	4/21(금)	4/24(월)	4/25(화)
KOSPI	1,961.3	2,026.5	2,207.8	2,138.4	2,149.2	2,165.0	2,173.7	2,196.9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3,792.9	23,434.8	24,112.3	23,854.2	23,756.6	23,792.9
(증감액)	6,853.1	58.8	-22,754.4	162.3	677.5	-258.1	-97.6	36.3
(회전율)	28.8	24.8	34.0	36.2	36.6	33.7	31.5	34.0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20,044.8	-126.5	572.9	-178.3	-368.1	-263.5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293.4	3,290.0	3,299.9	3,316.0	3,306.8	3,293.4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005.6	3,926.9	3,955.8	3,981.9	4,002.2	4,005.6
미수금	151.0	125.6	104.1	105.6	111.8	116.8	113.8	104.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18(화)	4/19(수)	4/20(목)	4/21(금)	4/24(월)
전체 주식형	68,676	-5,663	-665	55	-44	-239	-167	-85
(ex.ETF)		-3,685	-203	40	26	-79	-18	-93
국내주식형	51,350	-5,158	-676	89	-63	-233	-179	-80
(ex.ETF)		-3,213	-241	47	6	-73	-30	-89
해외주식형	17,327	-505	11	-33	20	-6	11	-5
(ex.ETF)		-472	38	-6	20	-6	11	-5
주식혼합형	7,978	-101	62	12	54	10	11	-42
채권혼합형	23,727	-2,811	-421	-18	445	-38	-76	-510
채권형	103,065	-1,315	-13	-526	112	173	240	-81
MMF	133,828	29,016	15,484	821	119	-693	-441	-5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20(목)	4/21(금)	4/24(월)	4/25(화)	4/26(수)
한국	5,392	673	1,396	65	206	295	575	255
대만	5,849	468	582	-19	83	84	435	-
인도	6,490	-208	142	-17	194	-35	-	-
인도네시아	1,466	843	224	102	23	-	99	-
태국	179	-6	4	-12	-29	12	33	-
남아공	-2,554	-101	-38	-38	-18	-60	78	-
필리핀	-160	189	21	-7	-5	3	2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4/20(목)	4/21(금)	4/24(월)	4/25(화)	4/25(화)
회사채 (AA-)	2.14	2.19	2.20	2.22	2.20	2.20
회사채 (BBB-)	8.27	8.41	8.42	8.43	8.42	8.42
국고채 (3년)	1.64	1.67	1.68	1.70	1.67	1.68
국고채 (5년)	1.80	1.84	1.85	1.88	1.86	1.87
국고채 (10년)	2.08	2.14	2.16	2.20	2.19	2.20
미 국채 (10년)	2.56	2.23	2.24	2.27	2.33	-
일 국채 (10년)	0.06	0.02	0.01	0.02	0.02	-
원/달러	1,210.50	1,139.80	1,134.40	1,129.90	1,125.40	1,125.10
원/100엔	1,030.04	1,045.40	1,039.59	1,027.46	1,015.43	1,009.78
엔/달러	117.52	109.03	109.12	109.97	110.83	111.42
달러/유로	1.05	1.07	1.06	1.08	1.09	1.09
DDR3 1Gb (1333MHz)	1.15	1.20	1.20	1.09	1.20	-
DDR3 2Gb (1333MHz)	1.50	1.84	1.83	1.83	1.82	-
NAND Flash 16Gb (MLC)	1.87	2.25	2.24	2.33	2.35	-
CRB 지수	193.97	184.56	181.87	180.93	181.90	-
LME 지수	2,663.2	2,761.6	2,748.1	2,760.6	2,780.7	-
BDI	961	1,243	1,195	1,170	1,154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0.27	49.62	49.23	49.56	-
금 (달러/온스)	1,131.35	1,282.10	1,281.85	1,269.40	1,267.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中> 1Q GDP YoY (6.9%, 6.8%, 6.8%) 유럽> 영국,독일 휴장(Easter Monday)	美> 3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215, 1250, 1288) 3월 광공업생산 MoM (0.5%, 0.5%, 0.1%)	美> 베이지북 발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8%, n/a, 1.5%) 유럽> 3월 CPI YoY (1.5%, 1.5%, 1.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4, 240, 234) 3월 선행지수 (0.4%, 0.2%, 0.6%) 유럽> 4월 소비자대지수 (-3.6, -4.8, -5.0)	美> 4월 마켓 제조업 PMI (52.8, 53.5, 53.3) 3월 기존주택매매(백만) (5.71, 5.60, 5.48)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52.8, n/a, 52.4) 2월 3차 산업 지수 MoM (0.2%, 0.3%, 0.0%) 유럽> 프랑스 1차 대선(23일) 4월 마켓 제조업 PMI (56.8, 56.0, 56.2)
24	25	26	27	28
	美> 4월 소비자대지수 (120.3, 123.0, 125.6)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21, 584, 592)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8%) 日> 2월 전체산업활동지수 MoM (0.7%, 0.6%, 0.1%)	韓> 1Q GDP YoY (n/a, 2.6%, 2.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3, 244) 3월 내구재 주문 (n/a, 1.3%, 1.8%) 3월 도매 재고 MoM (n/a, 0.3%, 0.4%) 유럽> ECB 기준금리결정 (n/a, -0.4%, -0.4%)	美> 1Q GDP YoY (n/a, 1.1%, 2.1%) 日> 3월 광공업생산 MoM (n/a, -0.8%, 3.2%) 3월 실업률 (n/a, 2.9%, 2.8%) 3월 CPI YoY (n/a, 0.3%, 0.3%) 유럽> 3월 M3 통화공급 YoY (n/a, 4.7%, 4.7%)
1	2	3	4	5
韓> 4월 수출 YoY (n/a, n/a, n/a) 美> 3월 개인소득 (n/a, 0.3%, 0.4%)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2.8) 4월 ISM 제조업 (n/a, 56.6, 57.2) 3월 건설지출 MoM (n/a, 0.4%, 0.8%) 中> 4월 제조업 PMI(30일) (n/a, n/a, 51.8) 日>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52.8)	韓> 4월 CPI YoY (n/a, n/a, 2.2%) 4월 닛케이 PMI 제조업 (n/a, n/a, 48.4)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6.8) 中> 4월 차이신 PMI 제조업 (n/a, n/a, 51.2)	美> FOMC 금리결정 (n/a, 1.00%, 1.0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4월 ADP 취업자변동(천명) (n/a, 170, 263) 유럽> 1Q GDP YoY (n/a, n/a, 1.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3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5.2, -43.6) 3월 제조업주 (n/a, n/a, 1.0%) 3월 내구재주문 (n/a, n/a, n/a)	美> 4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80, 98) 3월 실업률 (n/a, 4.6%, 4.5%)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야침)

